

“그토록 소원하던 일이 현실로...”

재창조의 권능으로 성장이 멈췄던 키가 자라게 된 이재진 형제와 굽었던 허리가 꼳꼳이 펴진 태국 우이노이 성도의 간증.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모든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자녀 된 성도들은 복음의 빛진 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우리가 받은 사랑, 전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전하니 위로부터 부여주시는 은혜와 행복으로 감사가 넘친다는 일꾼들의 고백.

# 만민뉴스

제824호 2018년 1월 28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 “왜소증으로 닫혔던 성장판이 열리고 키가 32 cm나 자랐습니다!”

이재진 형제 (20세, 1청년선교회)

만민선교원에 다닐 때부터 저는 늘 또래 친구들보다 20 cm 정도는 더 작았습니다. 초등학생 때도, 중학생 때도 마찬가지였지요. 체구도 매우 아담하여 친구들이 저를 귀엽다며 안아 보기도 하고 들어 보기도 할 때면 때론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지만,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아서 일부러 신경을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김영문 집사)는 ‘널 작게 낳아서 미안하구나.’ 하시며 저를 병원에 여러 번 데리고 가셨는데, 의사 선생님은 “왜소증이며 성장판이 닫혀서 키가 안 클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중학교 졸업 당시 제 체중은 28 kg, 키는 128 cm였습니다. 보통 160 cm 정도 되는 친구

자신의 잘못된 양 눈물로 기도하시며 전도와 충성으로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셨습니다.

그런데 2월경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가끔 제 키를 재 주시는데 3 cm가 자라 131 cm가 된 것입니다. 그 뒤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엇이든지 가능하다는 믿음으로 때를 좇아 당회장님께 나아가 저를 위해 기도를 받아 주셨습니다.

2016년 12월, 제 키는 140 cm가 되었고 2017년 5월에는 151 cm로 커졌습니다. 그런데 7월경, 제 실수로 손목이 다쳐 정형외과에 가게 됐는데 거기서 놀라운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엑스레이를 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몇 살이냐고 물으시더니 이제야 성장판이 열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로 왜소증이 치료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2018년 1월, 현재 제 키는 160 cm가 되었습니다. 제 키가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지만 합니다. 병원에서서는 성장판이 닫혀 더 이상 자랄 수 없다던 키가 성장판이 열려 총 32 cm나 자란 것이지요. 목자의 권능은 정말 크고도 놀랍습니다!

이 일은 제게 믿음의 큰 체험이 되었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제 키는 앞으로도 더 자랄 것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들 사이에 서면 저는 막냇동생처럼 보였습니다.

2014년 2월경, 어머니는 저를 다시 병원으로 데려가셨고 5일간 입원하여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은 성장호르몬이 생성되지 않아서 더 이상 클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른이 되어도 지금의 이 키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에 막막해졌습니다.

저를 위해 안타깝게 기도하시던 어머니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 함께 기도받으러 가자고 말씀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저는 당회장님의 기도를 통해 수많은 성도가 치료되고 마음의 소원에 응답받는 것은 알았지만 이미 성장판이 닫혀 버린 제가 자랄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2015년 1월 1일, 송구영신예배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당회장님께 직접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어머니는 제 키가 자라지 않는 것이

중학교 졸업 당시 체중 28 kg에 키 128 cm였던 이재진 형제



이재록 목사의 기도로 성장한 키의 변화



## “51년간 굽었던 허리가 곧게 펴졌어요!” 우이노이 성도 (81세, 태국 치앙라이)

저는 젊은 시절, 산후조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산후풍을 겪으며 몸이 날로 쇠약해져 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른 살 때는 허리가 45도로 굽어 버렸지요.

30대의 젊은 여인이 허리도 펴지 못하고 항상 구부정하게 다니니 남들 보기가 너무 창피했습니다. 빨리 걷지도 못하고, 서서 하는 일이나 힘든 일은 할 수도 없어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민망했지요. 남들처럼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에 여러 병원을 찾다니며 진료도 받아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어쩔 수 없이 체념하고 살았지만, 저는 자세가 반듯한 사람들을 볼 때면 내심 부러웠지요.



2016년 11월 말, 친구의 전도로 치앙라이만민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불교를 믿던 집안에서 성장한 제게 ‘교회’라는 곳은 난생처음이었지만 낯설기보다 가족처럼 따뜻한 분위기가 마냥 좋았습니다. 특히 찬양예배는 이제껏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을 안겨 주었습니다.

저를 전도한 친구는 교회에 다니면서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고 요통과 복통을 치료받았다고 제게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손수건으로 기도를 받으면 저의 굽은 허리도 능히 치료받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지요.

2017년 12월 11일, 저는 친구의 말이 믿어져 치앙라이만민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이재원 목사님에게 권능의 손수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받은 즉시 허리가 조금 펴졌지요.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얼마 후 두세 차례 더 기도를 받은 뒤에는 허리에 힘이 주어지더니 마침내 꼳꼳이 펴졌지요. 할렐루야!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 51년간 굽었던 허리가 80이 넘는 나이에 곧게 펴지다니 정말 꿈만 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1~6)

#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령 물질로 많이 심었어도 기도하지 않거나 충성하지 않으면 축복이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잘되어 가는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온전한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믿음과 소망 없이 심었다면 이 역시 바르게 심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함 자체가 아니라 거기에 담긴 마음의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심어 놓고 불평, 불만, 부정적인 고백을 하여 받을 축복을 쏟아버리기도 하지요. 진정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바르게 심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을 때는 반드시 온전한 것으로 심어야 온전한 축복으로 거둘 수 있습니다(레 22:20~22).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로 심거나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심는 것은 온전한 예물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기도나 충성 등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렸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두 렘돈의 작은 금액이라도 자신의 소유 전부인 사람이 있고, 기도 시간이 적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시간을 내서 중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작은 사명이지만 늘 섬김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므로 최선을 다해 사랑과 믿음, 소망 가운데 마음 중심의 향을 실어 드린다면 그것을 결코 작다 하지 않으십니다.

과연 나는 무엇으로 얼마나 심었는지 분별해 봄으로 축복받기에 합당한 자격 인지를 점검해 축복의 그릇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 2.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말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도 밭에 씨를 심으면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에 심으라고 하면 당장 보이는 것이 없고 만져지지 않는 것을 위해 심으라고 하니 의심하며 꺼려하

는 사람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히 11:1).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니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은 줄로 믿으라고 당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심는 사람은 당장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심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 열매가 보일까?’, ‘정말 열매가 드러날까?’ 하는 육신의 생각을 결코 동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으면 반드시 거두고,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요.

무엇을 심지 않고 거두기를 바라는 것도 공의에 어긋나지만,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여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공의에서 어긋납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행통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함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큰 가뭄 중에 있을 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신뢰함으로 가뭄과 상관없이 행통했습니다(왕상 17:13~16).

## 3. 축복의 연단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땅에 뿌린 씨가 자라 열매를 맺기까지는 모진 비바람과 폭풍우를 견뎌내고 해

중의 위협도 이겨내야 합니다. 영적으로 최고의 환경이 주어졌다 해도 최고의 알곡이 나오려면 연단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연단을 통과해 남은 알곡만이 추수하는 농부의 기쁨이며 축복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연단이 당시에는 조금 벅차게 느껴질지라도 지나고 나면 모든 것이 참 자녀 곧 최고의 알곡으로 만들어 주시려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단을 인도하심에 있어서도 늘 평안하고 좋은 환경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육으로 볼 때는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들을 주셨지요. 하지만 이 과정을 믿음과 인내와 사랑으로 통과할 때마다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반드시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당장은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의 과정이 있어야 마침내 금메달의 가치가 더 큰 것입니다. 물질의 축복, 사명자로서의 축복도 연단의 과정을 통과한 후에 주어질 때라야 비로소 참된 가치를 느끼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게 되는 순간은 바로 천국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이 땅에서 심고 행한 것보다 더 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치도록 예비해 주신 천국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요. 이 땅에서 나를 연단하여 변화시켜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온전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참된 기쁨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온전케 하여(약 2:22) 영육 간에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잘된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받는 축복이 클 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습니다(요 삼 1:2).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질, 시간, 건강, 정성, 마음 등 믿음으로 심고 쌓은 것이 열매로 맺히는 시점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똑같이 심은 것 같아도 거두는 열매의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마음 중심의 향을 심어야 합니다

농부가 씨를 심지 않고는 수확을 바랄 수 없고, 나쁜 씨를 심고 좋은 수확을 바랄 수도 없으며, 적게 심고 많은 수확을 바랄 수도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했습니다.

여기서 ‘심는다’는 것은 물질만이 아니라 기도, 충성, 감사, 기쁨, 입술의 고백 등 영육 간에 심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설

**만민뉴스**  
등록 서울, 다 01840(1989.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빈금선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30분간격 교회버스 이용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성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일예배	11:00 PM
수요일예배	7:00 PM
화요일예배 [청년·가나안]	8:00 PM
수요일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일예배 [중·고등부]	4:00 PM
토요일예배 [아동부]	3:00 PM
다. 일침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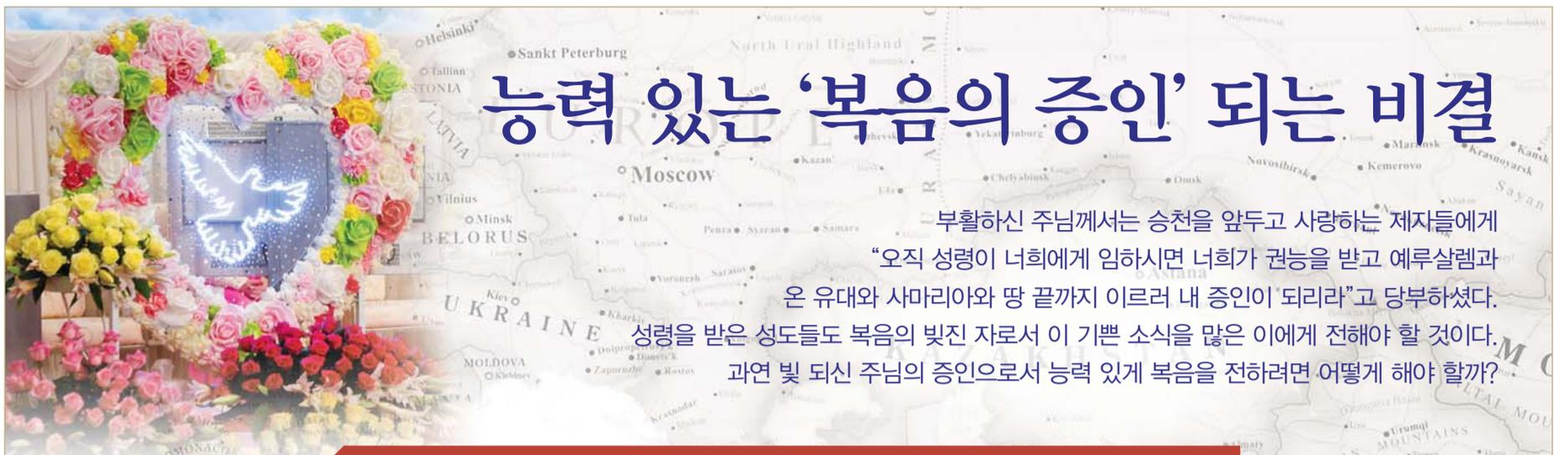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기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기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의행** 1002-480-336879 (예금주 이호상)



#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 되는 비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승천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당부하셨다. 성령을 받은 성도들도 복음의 빛진 자로서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이에게 전해야 할 것이다. 과연 빛 되신 주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확실한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야 한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된다. 이 믿음의 산체험이 쌓일수록 믿음의 반석 위에 서게 되고(마 7:24), 복음도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전할 수 있다.

만일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할 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질병을 치료받은 체험이 있다면 분명한 확신 속에 전할 수 있다. 혹 누가 뭐라 해도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기에 전혀 흔들림 없이 증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전도 대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증거할 때 이방인들의 위협뿐 아니라 동족 유대인들로부터도 많은 핍박과 환란을 겪어야 했다. 그럼에도 그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확실한 체험이 있었기 때문이다(갈 6:17).

주님의 제자들이 복음 증거를 위해 순교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도 부활하신 주님을 진히 목격했기 때문이다(고전 15:4-8).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고 아무리 반박한다 해도 자신들이 진히 목격한 일기에 주님의 부활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이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의 체험을 통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산 믿음이 되어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섰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의 체험을 통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산 믿음이 되어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섰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의 체험을 통해 확고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날마다 체험하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 산 믿음이 되어 확실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섰으로 오직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란다.

##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불타는 마음이 되어야 한다

마음에 불타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어야 믿음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여 잡아 가둔 장면이 나온다.

이튿날이 되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며 힐문하기 시작했다. 이런 위압감이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며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가 되심을 확실히 증거했다.

스데반 집사도 지혜와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니 능히 당할 자가 없었다(행 6:10). 성령이 충만해 영안이 열려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도 보고 장렬히 순교할 수도 있었다(행 7장).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함이 나올 수 있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기도를 통해 입을 수 있다.

불같은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면 육의 한계와 모든 생각을 초월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위협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어려운 환경이 와도 그 안에 구속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육의 한계에 갇혀 현실을 보게 되고, 현실을 보면 무슨 일을 해도 믿음이 아닌 인간적인 계산속에 이루게 된다. 따라서 항상 깨어 기도하되 중심을 다한 불같은 기도를 쌓아 늘 성령 충만해야 한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의 밝은 음성, 주관, 인도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일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틀 가운데서 나온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알고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크나큰 손실일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정확히 주관을 받아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치 않고 순종했을 때에는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확연히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확실히 나오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과 함께 성령의 밝은 음성, 주관, 인도를 받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만일 열심히 주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헌신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거나, 인간적인 생각이나 틀 가운데서 나온 계획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못 알고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에 크나큰 손실일 것이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 속에 정확히 주관을 받아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치 않고 순종했을 때에는 스스로 성령의 역사를 확연히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가 확실히 나오게 된다.

## 성결을 이루어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을 수 있다. 이는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요일 3:21-22).

마가복음 16장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시라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신 대로 주님께서 함께하시면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이 사실임을 확증시켜 줄 수 있다. 이처럼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능히 감당하려면 성결을 이루어 권능을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 때, 뚜렷한 표적을 보아도 의심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받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복음의 증거자로서

마지막 때, 뚜렷한 표적을 보아도 의심하는 악한 세대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받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복음의 증거자로서

로서 곳곳에 나아가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 계심이 믿어진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하늘에서도 큰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복된 자녀들로 나오기를 바란다.

<p><b>주요프로그램 안내</b> 2018.1.28~2.3</p>	<p><b>이재록 목사의 생명의 말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영적인 사랑</li> <li>마음 다해</li> <li>아버지의 심리 2</li> <li>전도 2</li> <li>창세기 강해 1-5</li> <li>선 1-4</li> <li>육체의 결여 3-6</li> <li>천국 43-49</li> <li>위로부터 난 지혜 9</li> <li>믿음을 척량하시니 15-21</li> </ul>	<p><b>GCN TV 설교</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시행하리니 1-4 (이수진 목사)</li> <li>나의 고백 1 (이희선 목사)</li> <li>욥기 강해 29 (신동초 목사)</li> <li>6계명 1 (정구영 목사)</li> <li>진리의 자유함 (김수정 목사)</li> <li>축복의 토대 4 (천우진 목사)</li> </ul>	<p><b>예능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권능 스페셜 13</li> <li>마지막 때 13</li> <li>모두 드려요 28</li> <li>창조와 과학 23</li> <li>옛날 옛적에 (시즈미) 9</li> <li>내 마음의 찬양 27</li> <li>일곱달콩 어여쁜 울동 81</li> <li>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다시해보기) 22</li> </ul>	<p><b>해외성회 프로그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상 7</li> <li>인도 연합대성회 2</li> <li>믿음으로 걸어온 길 19</li> </ul> <p>전국 어디서나 <b>alLeh tv 882번</b> 세계 어디서나 <b>Roku TV</b></p>
---	--	---	---	--

# “주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니 행복합니다!”

##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실천하는 일꾼들



2018년 새해를 앞두고 대대교구에서는 지난 12월부터 여구역장·조장·지역장 등 일꾼들이 모인 가운데 총괄대교구장인 이수진 목사의 말씀과 기도회 인도로 영혼 구원에 대한 사명감과 열정을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일꾼들 가운데 특별히 심방 정예요원들은 수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에 모여 기도회를 한 뒤 오후 4시까지 전도 및 심방에 전력하였다.

그 결과 일꾼들은 연초부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영혼의 변화와 더불어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있다.

**지역장 이영숙 권사(3대대 32교구)**는 “영혼들을 심방할 때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기쁨과 행복을 부어주십니다. 사실 갱년기 증상이 있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영혼들을 만나 하나님 사랑을 전하다 보니 어느새 갱년기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이번 아니라 가족이 전도되는 축복까지 받았습니다.”라고 간증한다.

구역장 김귀남 집사(3대대 30교구)는 “전에는 소심한 성격 탓에 움츠리고 무디어진 마음에 신앙도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심방에 함께할 때 성

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함 속에 영혼에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신앙도 뜨거워졌습니다.”라며 기뻐했다.

**지역장 이호숙 권사(2대대 19교구)**는 “심방 정예요원을 하면서 일꾼들이 더 하나 되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한 구역장님은 남편 사업터에 축복이 임했고, 저는 언니를 전도해 지금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십니다.”라고 했다.

또한 남구역장·조장·지역장들도 퇴근 후나 남장년 구역예배를 드리는 목요일과 토요일을 이용해서 심방에 주력하고 있다. 구역장 김득섭 집사(3대대 23교구)는 “건강과 가정사로 마음이 몹시 곤고하시던 노부부가 심방을 통해 교회에 나오신 뒤 매우 밝아지셨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더 행복해집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틈을 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데 심방을 하면서 오히려 더 은혜와 영적 충만함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들은 2010년에 시작된 교회의 영적 흐름을 통해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 목자의 크신 사랑을 몸소 체험하였기에 영혼들에게도 이진보

다 더 넉넉하고 변화된 섬김의 마음으로 받은 사랑을 전하고 있다.

**지역장 이수자 권사(1대대 5교구)**는 “일꾼들과 함께 찾아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변화될 모습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또 심방을 가게 됩니다.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목자님께 그러한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처음에는 홀대하던 영혼들도 결국 교회 나오는 것을 보면 감사가 넘칩니다.”라고 말했다.

**지역장 윤영옥 권사(1대대 9교구)**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목자의 마음을 느끼니 아무리 강박한 영혼이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한 명이라도 더 만나고자 심방하며 전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닮아 능력을 받아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생기니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도 더 힘쓰게 됩니다.”라고 고백했다.

이처럼 전도와 심방에 힘쓰는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 영혼들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

다가 먼 곳으로 이사하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던 정재훈 성도(3대대 22교구)는 “최근 직장 생활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마음도 곤고해 인터넷을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위로를 얻고 있었습니다. 다시 교회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예전에 살던 지역 구역장님의 전화를 받게 되었지요.”라며 감사해했다. 이후 그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한편, 해외교구 러시아 부구역장 임나탈리아 집사는 “작년 12월에 부흥을 위해 당회장님께 기도를 받은 후 확신이 생겼어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 안산으로 가서 우리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능의 역사를 사진과 함께 보여주며 전도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선한 영혼들을 붙여주셔서 교회와 거리가 먼 지역이지만 새신자들이 많이 나오게 되었고, 그 중 다섯 명은 송구영신예배에 참석해 당회장님의 축복기도를 받은 뒤 취직하였습니다.”라고 간증했다.

값없이 받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주시며, 기쁨과 행복을 체험케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강릉만민교회 강원도 강릉시 하평3길 11 ☎033)641-3790, 010-6334-7750
- 거제만민교회 경남 거제시 신부로 3길 8 ☎055)687-6882, 010-3800-2048
- 경주만민교회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중앙길 101호 ☎062)513-2455, 010-8888-0727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군산만민교회 전북 군산시 상나운안길 11 ☎063)468-7027, 010-7777-7027
- 김해만민교회 경남 김해시 분성로 476 ☎055)322-7055, 010-6605-2254
- 남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중구 산전길 9 ☎052)291-2253, 010-2505-1537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구만민교회 대구광역시 북구 오봉로 22 ☎053)356-4717, 010-4575-1934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동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82-10 ☎062)266-7001, 010-3637-6443
- ▶마산만민성결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654 ☎055)247-8891~2, 010-3559-9067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용당로 281, 종원빌딩 ☎061)284-3133, 010-2629-827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도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시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금암로 135 ☎042)841-0091, 010-7195-1099
- ▶새광주만민교회 광주시 서구 차평로 60 302호 ☎062)372-1002, 010-9978-2428
- ▶새창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봉로176번길 62 ☎070-4823-7173, 010-8291-7173

- ▶서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013 (구남지하철역) ☎051)326-1537, 010-7213-6207
- ▶서산만민교회 충남 서산시 잠동1길 24 ☎041)667-4721, 010-2781-2073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미시령로 3383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안성만민교회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진달길 64 ☎031)652-9981, 010-2909-2862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연천만민교회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백학로 234번길 25-4 ☎031)835-1717, 010-7307-2217
- ▶울산만민교회 울산광역시 남구 돌질로355번길 12-1 ☎052)257-5011, 010-2485-1537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개운동) ☎033)766-1535, 010-9108-2073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절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도9길 55-4 ☎064)745-0675, 010-2468-2251
- ▶진주문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창원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성산구 연덕로184번길 28 ☎055)289-9522, 010-9331-4405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서원구 구룡산로326번길 32 ☎043)293-7077, 010-9271-7017
- ▶춘천만민교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3 ☎033)261-4217, 010-2759-7017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연수로 7 두진상가 201호 ☎043)845-0617, 010-2278-0641
- ▶통영만민교회 경남 통영시 광도면 남해안대로 861 ☎055)648-9107, 010-7224-8891
- ▶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남로 153 ☎054)281-9367, 010-8433-2073
- ▶해운대만민교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광어골로 76 ☎010-8020-7333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3232-750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8163-1537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3232-750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2276-1014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3049-2072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6395-01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8163-1537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설대천로 1177번길 12 ☎031)635-9103, 010-9458-3922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2208-5719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빌D ☎031)905-2419, 010-2276-1014